

# 라이베리아 에볼라 급속 확산

### 사망자 급증...수도 몬로비 빈민가 출입 차단·야간 통행 금지

### 나이지리아·시에라리온 등 사상자·감염 의심환자 추가 발생

라이베리아가 에볼라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야간 통행금지를 시행하고 수도 몬로비의 일부 지역을 봉쇄하기로 했다고 19일(현지시간) AP,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엘렌 존슨 설리프 대통령은 이날 밤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야간 통행금지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적용되며, 에볼라 환자 격리센터가 위치한 몬로비의 빈민가 웨스트포인트 일대 출입도 차단된다.

이 격리센터는 최근 괴한들의 습격을 받은 곳으로, 에볼라 환자 17명이 탈출했다가 복귀하기를 했으나 환자 체제가 문은 닫은 등이 유출돼 에볼라 확산 우려를 낳기도 했다.

라이베리아에서는 최근 다른 에볼라 발병국보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달 14~16일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에 감염돼 숨진 환자는 53명으로 시에라리온(17명), 기니(14

명) 등 이웃 나라들보다 훨씬 많다. 총 사망자도 466명으로 첫 에볼라 환자 발생국인 기니(394명)를 넘어섰다.

라이베리아는 에볼라 발생 4개국 가운데 인구당 의사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라이베리아 정부는 최근 성명에서 에볼라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북부 로파지역에 시신을 담은 비닐백은 물론 소독제와 방호복 등 물자가 거의 떨어졌다고 밝혔다.

라이베리아의 에볼라 사망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00여명이 기니·시에라리온 국경과 인접한 로파에서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나이지리아에서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고 시에라리온에서는 의심 환자 200명이 더 나오는 등 에볼라 사태는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나이지리아 보건부는 이날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

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의료진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의사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의 에볼라 사망자는 앞서 이날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한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 시에라리온에서는 감염 의심사례가 200건 이상 더 발생한 것으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파악했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WHO와 함께 에볼라 확산지역에 식량과 물자 등을 지원하고 있는 WFP는 시에라리온 북부 포트 로코주의 루나 지역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에만 200명가량의 의심 환자가 보고돼 격리됐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4~16일 라이베리아와 기니,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등 서아프리카 4개국에서 모두 113명이 추가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19일 현재 총 감염자가 2240명(의심환자 포함)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추가된 사망자는 84명이며 19일까지 총 1229명이 숨졌다.

한편 지난 12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에볼라 조정관 데이비드 나바로 박사는 이번 주 안으로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발병국을 방문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AFP 통신이 전했다. /연합뉴스



“휴전 파기”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팔레스타인 가자시에서 연기와 파괴된 물체의 잔해들이 솟아 오르고 있다. 닷새간의 임시 휴전이 종료되기 8시간 전인 이날 앞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베르세베시에 로켓 포탄 3발을 발사하고, 이스라엘이 이에 대응해 가자 지구 공습을 재개하면서 양측은 한시적 휴전이 파기됐음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 이라크 반군, 美 공습 보복...기자 참수

### 영상 공개...추가 살해 협박도

이라크의 이슬람 수니파 근본주의 반군 ‘이슬람 국가’(IS)는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라크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인 기자를 참수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다른 한 명을 더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AP와 AFP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IS는 유튜브에 올린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5분짜리 영상에 미국인 프리랜서 기자 제임스 라이트 폴리(40)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프리랜서 기자인 폴리는 미국 글로벌포스트와 AFP통신 등에 시리아 상황을 전해왔으며 5년간 가랑 시리아에서 활동하다 2012년 11월 시리아 북부 이드리브에서 실종됐다.

영상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의 IS 공습을 승인하는 장면으로 시작해 IS가 폴리라고 신원을 밝힌 남성을 사막에 끌어 앉혀 놓은 모습으로 이어진다.

이후 폴리가 “진짜 살인자는 미국 지도자들”이

라고 외치며, 그 직후 검은 복면을 쓰고 영국식 발음을 하는 남성이 흉기로 폴리를 살해한다.

IS는 또 다른 남성을 비추며 그가 미국인 기자 스티븐 소트로프라고 주장하고 다음 희생자로 지목했다.

타임과 포인폴리시 등에 기고한 프리랜서 기자인 소트로프는 지난해 8월 시리아에서 실종됐다.

유튜브는 정책에 따라 이 영상을 삭제했다. 케이트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정부가 해당 영상을 봤고 정보 당국에서 가능한 한 빨리 그 진위를 파악하고자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몇몇 고위 관계자들은 IS가 최근 지난 2주 동안 미국이 신자르 산과 모슬렘, 쿠르드 자치정부 수도 아르빌 등을 공습한 데 대한 복수용 폴리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IS는 전날에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공습 등으로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 자치정부(KRG)군을 지원 하는 미국에 보복하겠다고 “미국 어디든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연합뉴스

### 히로시마 폭우 8명 사망·13명 실종

일본 히로시마(廣島)시에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에 국지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토사가 주택가를 덮쳐 8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실종됐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확인된 사망자는 8명이며, 실종자는 흩어미에 묻혔거나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히로시마 기상대에 따르면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는 20일 오전 3시30분께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방위성은 히로시마현의 재해피견 요청에 따라 육상 자위대원 30여 명을 현장에 급파했다.

NHK는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던 소방대원 1명도 사망했다고 전했다. /최권일기자 cki@

## 티베트 시위대, 中 발포로 11명 숨져

중국 공안이 최근 티베트족 집단 거주지역에서 시위대를 향해 발포, 11명을 숨지게 했다고 외국 언론 매체가 보도했다.

중국 공안이 지난 12일 쓰촨(四川)성 간쑤(甘孜) 티베트족 자치주 스취(石渠)현 정커(正科)향 쉬바(許巴)촌에서 발생한 주민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포, 1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다고 미국에서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신(博訊)이 20일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이밖에 경찰의 발포로 주민 10여 명이 부상했고, 지난 17일 실종된 현지 주민 3명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9일 이번 충격 사건으로 쉬바촌 왕자(旺紫) 촌장의 친척 3명이 경찰에 구금된 기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전했다. 쉬바촌 주민들은 지난 12일 체포된 왕자 촌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무장경찰은 진압하는 과정에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왕자 촌장은 11일 현지 관리들이 항을 위해 강제로 동원된 현지 여성 무용원들을 희롱하고 전통 축제인 경마 행사를 저지한 데 대해 당국에 해명을 요구하다 전격 체포됐다.

한편, 쓰촨성 뎡양(綿陽) 교도소에 수감된 푸룽랑(布絨朗) 제4대 린포체(티베트 불교에서 전생에 수행자의 삶을 살다가 죽은 후 인간의 몸으로 환생한 고승)의 제자들은 그가 교도소 측의 비인간적인 처사로 건강이 크게 악화했다면서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다고 RFA는 전했다. /연합뉴스

## 삼호드림호 납치 몸값 받은 소말리아 해적 두목 붙잡혀

한국 유조선 삼호드림호를 납치해 900만 달러(약 91억8000만원)의 몸값을 받아낸 소말리아 해적 두목이 붙잡혔다.

소말리아 치안 당국 소식통은 소말리아 해적 두목 모하메드 가르판지를 체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가르판지는 소말리아 해적 가운데 가장 세력이 큰 해적단을 이끄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17일 모가디슈에서 중무장한 경호원들과 함께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말리아 정부는 가르판지의 체포 사실을 공식 발표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가르판지는 미국 정부와 세이셸 정부에 납치 혐의로 수배된 상태다. 가르판지는 2010년 유조선 삼호드림호를 납치한 뒤 217일 동안 억류했다가 900만 달러를 받고 풀려져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쳤다.

한때 극성을 부렸던 소말리아 해적은 미국 등 각국 군함이 아덴만을 비롯한 인도양 일대에서 초계 활동과 상선 보호 작전을 활발하게 펼치면서 수그러졌다.

소말리아 해적이 창궐하던 2011년에는 32척의 선박이 납치돼 736명의 선원이 억류되기도 했다.

현재도 소말리아 해적이 붙잡혀 있는 선원은 적어도 37명에 이르지만 피랍 선박 가운데 전처럼 대형 화물선이나 유조선은 없다.

/연합뉴스

한국관광공사  
오시아노 대중골프장

www.oceanoc.co.kr

# 이제부터 반값에 골프친다

대중골프장의 저렴한 그린피를 한번더 저렴하게  
골프 대중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오시아노 대중골프장    **예약 : 061)536-1000**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1064

선착순 한정판매

**선불 할인 카드란?** 일정 금액을 카드에 충전 후, 골프장 내장시, 프론트에 카드를 제시하시면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할인율에 따라 할인된 금액이 카드에서 차감 됩니다.

**- 선불 카드 할인표 -**

충전금액	200만원	400만원	900만원
그린피 할인율	기명1인 40%	기명1인 50%	무기명팀(전원) 40%

**공통 혜택**

- 캐디 선택제
- 골프장 내장시 카트비, 할인된 그린피가 충전 금액에서 차감
- 1일 18홀 적용

**- 요금 안내 -**

구분	금액	비고	
요일별 요금	주 중	60,000	18홀 기준
	주말(공휴일)	90,000	
팀당 카트비	60,000	캐디 선택제	
팀당 캐디피	100,000		

**Event** 2부 내장객 9홀 추가시 주중3만원/주말4만5천원 (카트료 포함)

구매 문의    **061-536-3952**